



사랑하는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 믿음속 교우님께: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24:14-16). 살아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보고, 정원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요한 20:14-15). 열 한 제자들도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아침 인사하셨을 때, 주님이 귀신인줄 알았습니다. (누가 24:36-37). 또,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 21:4).

다시사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다시 사신 주님이 대단한 모습과 굉장한 장소에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주님께서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나타나셨다면,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고 믿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요란하고 비범하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학교에, 우리 병원에, 우리 동네 마켈에,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 우리가 사는 이 곳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코비드-19 유행병으로 세상이 흥흥한 요즘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과 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루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부활주일 예배는 합동으로 오전 10 시에 영상으로 모입니다. 뉴욕연회 주재 감독이신, 토마스 비커튼 감독님께서 부활 메세지를 전달하십니다. 우리들의 친지와 이웃들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함께 드리는, 성령이 충만한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2020 년 4 월 8 일

조건삼 목사 올림

추신: 부활 주일 감사 헌금 봉투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들의 헌금이 사용되는 대로, 부활 생명 사역이 힘차게 전개되는 줄 믿습니다.